다산포럼

관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작은 일 하나에도 깐깐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충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베풀어 주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후자가 당연히 인기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크고 작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공적인 인간관계를 모두 관대함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상벌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범을 보이고 교화시킴으로써 법보다 도덕이 앞서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는 동아시아에서 법가와 유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여겨 왔다.

자산(子産)이라는 자로 알려진 공손(公孫) 국교(國僑)는 춘추시대 강대국 사이에 낀 정(鄭)나라에서 26년 동안 재상을 지내며 안정된 정치를 편 인물이다. 그가 재상에 오른 지 1년 만에 소인배들이 경박한 짓을 저지르지 못했고, 반백의 노인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밭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2년이 지나자 시장의 매매가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며, 3년째부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아무도 주워가지 않고 문단속을 할 필요도 없어졌다. 법과 그에 따른 상벌을 제정하고 공표해서 그 시행을 엄격하게 관리한 결과였다.

자산이 처음부터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시방종송'(始謗終誦) 즉 처음에는 비방하더니 결국에는 칭송하더라는 말이 그에게서 유래했다. 초기에 사람들은 "우리의 의관을 가져다 쌓아 두고 우리의 전답을 가져다 세금 물리네. 누가 자산을 죽일꼬? 내가 그를 도우리라"고 노래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 이르자, 청장년은 실성하여 통곡하고 노인들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노래했다. "우리의 자제들을 자산이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있는 전답, 자산이 늘려 주셨네. 자산이 돌아가시면 누가 그 뒤를 이을 수 있을까?"

"불은 사나워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불로 인해 죽는 이가 많지 않네. 반면에 물은 부드러워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빠져 죽는 이가 많다네. 관대함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지." 자산이 후계자 태숙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태숙은 차마 백성들을 엄혹하게 다스릴 수 없어 관대한 정치를 펼쳤다. 그 결과 정나라에 다시 도적이 들끓어 백성들의 삶이 위협받게 되자, 그제야 자산의 말을 떠올린 태숙은 후회하며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몰살시킴으로써 사태를 수습할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자산에 대한 공자(孔子)의 평가다. "훌륭하구나! 다스림이 관대하면 백성이 태만해지니 태만해지면 가혹하게 바로잡았고, 다스림이 가혹하면 백성이 나약해지니 나약해지면 관대함을 베풀었다. 관대함으로 가혹함을 조절하고 가혹함으로 관대함을 조절하였으니, 다스림이 이로써 조화를 이루었다." 인(仁)의 정치를 누구보다 강조한 공자였지만 관대함과 가혹함, 인자함과 엄격함을 적절하게 구사한 자산의 정치를 높게 인정한 것이다.

정치의 기술을 넘어서, 공자는 자산이 옛사람의 유풍을 이어받아서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논평했다.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그 가혹함의 목적이 실은 관대한 사랑을 이루고 오래도록 지속시키는 데에 있었음을 간파한 것이다. 공자뿐 아니라 당대의 백성들 역시 그 사랑을 깨닫고 칭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산은 당대에 가장 박학다식한 인물로 꼽혔을 뿐 아니라, 계획 세우고 성과 점검하기를 농사 짓듯이 아침저녁으로 쉬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정치라고 여겼고, 그대로 실천했다.

선한 의지와 너그러운 사랑만으로 복잡다단한 조직을 이끌 수 없다는 점은 2500여 년 전 춘추시대에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서슬 퍼런 형벌의 집행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 역시 역사가 입증해 왔다. 실무 지식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계획과 성과에 대한 점검을 멈추지 않는 것,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관대함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이 오래되고 평범한 진리에 오늘을 비추어 본다.

NGO 칼럼

마약 의존자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하다

박춘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장

현재 세계적으로 마약류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한국도 이미 마약류 청정국 위치에서 벗어나 그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에서는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보, 예방, 치료재활 등 세 파트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약은 마약 의존자와 중독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호기심조차 갖지 않도록 지면과 방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마약류 예방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마약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의존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는 상담과 단약(斷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마약류 중독 환자의 C형 간염 진단비 및 약물 중독 입원, 외래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재활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젊은층 사이에서 대마초, 필로폰, 물뽕, LSD, 엑시터시, 케타민 등의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압수된 필로폰(향정신성 의약품)은 2019년 62g, 2020년 347g, 2021년 298g 등으로 최근 3년 사이에 압수량이 다섯 배 가량 늘어났다. 또 광주 지역 마약류 사범 검거 사례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검거 인원 중 20~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대 249명, 30대가 204명으로 20~30대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젊은층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태다. 마약류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어느 집,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노출되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 특히 클럽 등 놀이 문화를 중심으로 이런 일들의 발생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곳이든 누구든 건네는 식음료를 거절하고 개봉된 식음료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마약 의존자나 중독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약 의존자나 중독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기존의 시선에서 벗어나 환자로 바라보아야 한다. 범죄자로 취급하여 격리 수용하는 것은 잠시 마약 사용을 멈추게 할 뿐 단약에 이르게 하기는 어렵다. 알콜 중독자를 전문 기관에서 상담하고 병원에서 치료하듯 마약류 의존자나 중독자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취약계층의 마약류 의존자나 중독자는 직장도 가정도 잃은 사람이 대부분이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 상담과 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약에 의존되거나 중독된 이후의 치료가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므로 범국민적 예방 교육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광주·전남의 시도민과 내 자녀를 지키는 일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가 앞장서겠다.

기 고

민선 8기 선출직들을 위한 제언

김용하
시인
용아 박용철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각급 지자체장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인사와 예산을 새로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을 새로 꾸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사실 요새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젖어 있다.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다 끝없는 물가의 상승과 경제의 불안, 자연재해 등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권의 고소 고발 사건 등 끝없는 당파싸움은 국민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지방자치의 새 출발에 쏠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로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무려 4000여 명이 새로 선출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정 조직과 의회를 따로 두는 것은 권한의 분산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정치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정당이 모든 것을 싹쓸이하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당 소속끼리 모여서 비판과 견제를 통한 균형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독선과 비리가 활개를 칠 우려가 높다.

과거에는 선거에 당선되어도 온갖 부정비리로 지방자치 관계자들이 기소되고 급기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선거하는 일을 많이 겪어 왔다. 이제는 자치단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새로 당선되어 책무를 맡은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높은 인격적 품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선출해 준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기를 공천해 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에 부합되는 편협적인 활동을 하거나, 차기 공천이나 자신의 영달을 위한 의식하는 선심성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것이다. 올바른 시대정신을 가지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공익 우선과 헌신 봉사의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비단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해 있는 각종 문화단체나 사회 조직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먼저 주위로부터 평소에 자신의 인격, 도덕성이나 업무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가를 먼저 돌아보고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과 단체에 대한 폭넓은 참여 경험을 통해 미션과 비전을 잘 파악하여,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봉사와 헌신, 인화의 자세를 바탕으로, 단체의 발전과 복지 증진, 행복감을 고취시키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그러한 자리를 통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기회로 생각하거나, 명예욕의 충족 수단으로 생각하여 넘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선전선동에 속아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추종자들의 온갖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선거의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 단체 조직원들의 화합과 상생 속에 존경받는 훌륭한 리더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맞물려 물가는 급등하고, 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나아가 미·중·러·일의 경쟁 심화와 남북한 핵과 안보의 극한 대치 속에서 내우외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각급 지자체는 우리 정치의 가장 기초 단위이자 최일선 행정으로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되, 전시 행정이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여 진정으로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의회는 이를 잘 지원하되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새로 구성되는 지자체는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제 구축과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 사분오열된 계층 간 갈등 해소 및 통합을 이루어야 할 실천적 역량이 더욱 절실하다.

각급 지자체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끼리끼리 담합하여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주민들의 매서운 질책이 쏟아질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 있음을 직시하여 그 누구도 이 사회를 특정 이념이나 정치 사상, 독선적 편견으로 이끌어 갈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편화된 상식과 열린 사고에 의한 배려와 소통을 전제로 민선 8기를 열어 가기를 빌어 본다.

社 說

'만성 정체'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개선해야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은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휴일이면 상습 교통정체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 서비스 등급 평가에서 5년 연속 낙제점을 받을 정도다. 하지만 수도권 위주의 예산 배정에 교통정체 개선 사업에서도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그제 공개한 한국도로공사의 '2021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용봉, 용봉~서광주, 서광주~동림, 동림~산월 등 총 네 개 구간의 서비스 수준이 도로별 적정 교통량 6단계(A~F) 중 'F등급'을 받았다. 4차로는 일평균 8만 대를 초과하면 F등급을 받는데 이들 구간은 2017년부터 매년 일평균 10만 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차량 운행 대수가 도로 용량을 초과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다. 특히 서광주~동림 구간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1차로당 일평균 교통량 상위 5개 구간'에 포함될 정도로 정체가 심했다.

이처럼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의 만성적인 정체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투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5년간 투입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예산을 보면 수도권 제1순환선에 40조 2282억 원, 경부선 27조 929억 원, 중부선에 13조 1898억 원이 집행됐다. 반면 호남고속도로는 2086억 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의 0.005%에 불과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의 정체는 인구 140만 명대의 광역시에 있는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4차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탓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광주IC~광산IC 구간 등의 확장이 추진돼 왔지만 10여 년째 타당성 검사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광주 관문의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교통정체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코로나에 취약층 영양실조 급증 돌봄 강화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남 지역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만 11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5000~6000명대를 기록했는데 1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5426명에 견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에서도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사람이 지난 2017년 407명에서 2021년 1165명으로 2.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영양실조는 주로 고령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60대 이상 노인층이 전체의 62.4%(6940명)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80세 이상이 23.6%(2622명), 70대 23.1%(2573명), 60대 15.7%(1745명) 순이었다. 10대 이하 아동·청소년도 5.2%(578명)나 됐다. 여기에는 의료급여 환자가 1837명(16.5%)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저소득층이다. 빈곤층의 생계난이 가중돼 건강까지 위협받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셈이다.

영양실조 급증은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늘어난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복지시설이 폐쇄되고, 무료 급식소 등의 운영이 중단돼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가 부실해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노약자·빈곤층은 재난 상황이나 다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이 후진국형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고립과 단절로 건강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순례자의 섬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을 출발한 여객선은 한 시간 뒤 대기점도 선착장에 닿는다. 섬에 근접하면 그리스 산토리니 섬의 건물을 옮겨온 듯 코발트색 둥근 지붕과 하얀 회벽을 한 이색적인 '건강의 집'(베드로)이 첫눈에 들어온다. 섬을 찾은 여행자들은 이곳에 설치된 작은 종을 울리며 '순례'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붉은 기와에 맞배지붕을 한 '그리움의 집'(야고보) 내부 벽면에는 이채롭게도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상(飛天像)이 새겨져 있다. 소기점도와 소악도를 연결하는 노둣길에 세워진 '기쁨의 집'(마태오)은 러시아 정교회 스타일의 황금색 양파 지붕을 하고 있다.

'순례자의 섬'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신안군 증도면 기점·소악도의 12개 건축물은 예수의 12사도(使徒) 이름을 붙였지만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예배당이 아니다. 오히려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나는 공공미술, 건축미술 작품이다. 물고기 모양의 스탠드글라스를 활용한 '소원의 집'(야고보)처럼 대부분 작은 창과 틈새, 그리고 빛과 그림자로 독특하게 공간을 구성해 지친 여행자들을 위한 작은 쉼터 기능도 수행한다.

여행자들은 두 발로 걷거나 승용차 또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섬을 돌아본다. 때로는 섬과 섬을 이어주는 노둣길이 바닷물에 잠겨 있으면 기다려야 한다. 대기점도~소기점도~소악도~진섬~딴섬 등 12㎞ 길이의 순례길에서 여행자들은 '치유'와 '위로'의 해법을 모색한다. 그런 까닭에 기점·소악도를 방문한 여행자들은 누구나 '나'를 찾으며 종교를 뛰어넘는 순례자가 된다.

신안군이 조성한 기점·소악도 순례길이 종교 편향 논란에 싸여 있다. 불교계는 최근 '기적의 순례길'과 '1004 천사섬 신안' 등 신안군의 사업과 상징 브랜드를 문제 삼았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신안군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신안 작은 섬에 조성된 도보길은 한국 사회에 절실한 상생과 관용, 포용, 화해, 경청, 소통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 준다. 불교계가 종교라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대승적(大乘的)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싶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